

# 태풍 대비 시설하우스 · 과수원 관리요령

## 1 시설하우스

### □ 예상되는 피해 유형

- (파손) 강풍, 비바람 등에 의한 온실 피복재·골조 등 시설 파손
- (침수) 집중 호우시 하천 근처, 논 부지에 설치된 시설하우스내 빗물 등 유입으로 농작물 침수

### □ 대비 사전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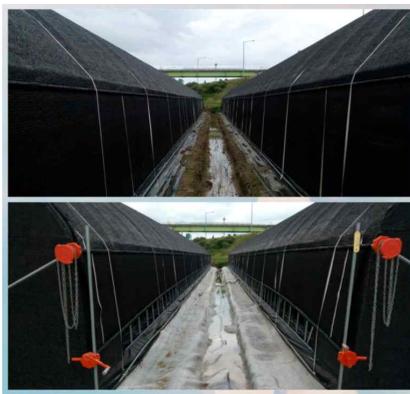
※ 시기에 따라 시급한 대책 우선 시행(태풍 : 파손, 장마 : 침수)

- (침수)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등
  -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고랑 및 주변 배수로에 흙, 잡풀 등 이물질 정리
  - 적정 배수로 규모\*(저폭 50cm, 깊이 60~90cm 이상) 유지
    - \* 30년 빈도 4시간 강우량 대비 배수기준(시설농업 기반정비 설계지침)
  - 배수로와 배수로(구) 연결부위 점검 및 이물질 정리
  - 역류된 하천수 유입 방지를 위한 모래주머니, 비닐 등 준비
  - 찢어지거나 노후화된 피복 비닐 교체 등

《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》



《시설 간 배수로 정비》



- (파손)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보강시설 설치
  - 강풍 대비 하우스 고정끈을 설치하여 골조와 비닐 밀착
  - 시설 내부 파이프 보강 또는 지지대 설치
  - 측창·환기창 등 개폐 부위를 점검하여 하우스를 철저히 밀폐
  - 비닐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

### □ 재해 이후 관리 대책

- (파손) 찢어지거나 파손된 비닐·골조 수리 등 재배환경 마련
  - 피복재에 흙양금·오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광투과성 유지
  - 손상된 피복재는 철거 후 새 비닐로 교체 등
- (침수) 신속한 배수 및 생육 정상화 대책 시행
  - 침수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짐으로 작물 침수 시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신속하게 물빼기
  - 침수피해가 심하거나 병든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전염원 차단
  - 경미한 피해를 받은 포장은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적용약제를 신속히 살포하여 병해충 방제
  - 과습으로 뿌리의 기능이 떨어져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요소 0.2% 액제 또는 복합4종비 엽면 살포
  - 환기 및 건조 등을 위해 하우스 환기창을 신속하게 개방

## 2 과수원

### □ 예상되는 피해 유형

- (낙과·도복) 강한 비바람·태풍으로 수확이 임박한 과실 낙과, 고정이 약한 지주시설이나 나무 도복, 지주시설·나무 동시 도복 등 발생
- (과원 침수·유실) 집중 강우에 의한 침수, 토사 유입에 의한 유실·매몰
- (생리장해) 장기간 침수 시 조기낙엽, 열과 등 각종 생리장해 발생
- (병해충) 고온·다습에 의해 전염성이 높은 역병, 탄저병 등 병 확산

### □ 대비 사전 대책

※ 시기에 따라 시급한 대책 우선 시행(태풍 : 낙과·도복, 장마 : 침수·유실)

- (낙과·도복) 덕·지주대 등 지주시설 결박·당김상태 점검 및 보강, 지주간, 지주·나무 간 연결 철선·끈 조임, 방풍망 점검 및 정비
  - 열매가 달린 가지는 끈으로 지주·나무줄기와 묶고, 낙과가 우려되는 품목은 수확이 가능한 경우 조기 수확을 통해 피해 최소화
  - 강풍에 약한 일자형\* 지주시설은 외곽·중간지주대 상단부를 철선·끈 등으로 연결하여 지면에 고정, 임시고정용 지주대 보강 등
  - \* 기존 시설에 격자 철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
- (침수·유실) 집중 강우에 의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의 풀이나 메워진 흙은 제거하고, 유실 위험이 있는 배수로 정비
  - 경사지 등 토양유실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경사지 시작점, 배수로 인접한 곳 등에 보온덮개, 비닐, 필름 등으로 피복

《과수원 지주대 보강 전경》



《과수원 방풍망 설치 전경》



- (병해충)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원의 과습을 방지하고 병 발생 이전에 예방 약제를 주기적(7~10일)으로 살포
- (생리장해) 열매가 없는 가지를 전정하고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과습을 억제하는 등 나무의 생육여건 개선

### □ 재해 이후 관리 대책

- (낙과·도복) 넘어진 나무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주대를 이용해 세워주고, 지하부 손상 정도에 따라 전정을 통해 가지 수를 조절
  - 떨어진 낙과를 장시간 과원에 방치하면 부패 등으로 다른 병해충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제거
  - 부러진 가지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를 통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약제를 살포
- (침수·유실) 배수로 내 잔재물, 토사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퇴수로 확보 및 퇴수조치
  - 토사·잔재물이 밀려 들어왔을 경우는 퇴수 후 신속히 토사·잔재물을 제거하고, 잎·과실에 묻은 흙양분을 씻어 2차 감염을 방지
  - 노출된 뿌리는 흙으로 신속히 덮어주고 잎이 손상되었으면 손상된 잎수에 알맞게 착과된 과실을 적과하여 수세를 회복시킴
- (생리장해) 과원 내 철저한 배수 관리를 통한 토양 과습을 억제하여 뿌리의 기능을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유도
- (병해충) 병해충 별 적합한 방제 약제 주기적 살포